

고성군, 화진포·해솔리아 관광개발 본격화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대규모 민간 투자 사업인 '고성 해솔리아 관광단지'와 '화진포 관광지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군은 고성의 미래 관광 지형을 바꿀 두 대형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7일 현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거진읍·현내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20일 거진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암리 해솔리아 관광단지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화진포 관광지 조성사업'은 현내면 초도리 84번지 일원에 추진하며, (주)호반호텔앤리조트가 시행을 맡아 대자연과 상생하는 가치 있는 휴식 공간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요 시설로는 프리미엄 타워(300실), 빌라 타워(76실), 빌라 테라스(48실)를 비롯해 프라이빗한 클럽 하우스와 가든 하우스 등 총 450실 규모의 숙박 시설이 들어선다. 또한, 화진포 호수 둘레길과 연계한 F&B 시설, 로컬 크래프트 펌, 북스토어, 웰니스 스파 빌리지 등이 조성되어 단순 숙박을 넘어선 특화 콘텐츠와 복합 문화 공간을 제공한다.

사업 추진의 첫 단계로 지난해 12월 11일 현내면 마차진리 22사단 초도중대 이전사업 현장에서 국방부와 제22보병사단, 예하부대, 지역 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2사단 초도중대 협의 이전 사업 착공식을 개최하고, 대체시설 신축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이전사업 완료 후 2027년 준공 경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립형성숲체원, 경계선 지능인 산림교육 프로그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직무대행 황성태) 국립형성숲체원이 사회적 지원 사각 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역량 강화와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오는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 지능과 지적장애 사이의 지능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학습과 사회 적응 과정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국립형성숲체원은 장애 등록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복지 서비스 접근이 제한적이며,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공공 산림복지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캠프 ▲자립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춘 자립캠프 두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산림교육 활동, 협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성취감을 경험하고, 또래 및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증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참여 대상은 경계선지능인 관련 기관·단체 및 가족 등 20명 이상의 단체이며, 자세한 신청 방법과 일정은 국립형성숲체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 내나라 여행박람회 강원특별자치도 '대상' 수상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대상, 2025년 최우수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

160개 국내의 관광 유관기관 및 지자체가 참가하여 385개 부스 규모로 운영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와 강원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장석삼)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협회중앙회 공동으로 주최한 '2026 내나라 여행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대상, 2025년 최우수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업적을 이루었다.

'2026 내나라 여행박람회'는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국내여행 기획상품 발굴과 이벤트를 통한 여행상품 판매 독

려를 위해 개최되었으며, 160개 국내외 관광 유관기관 및 지자체가 참가하여 385개 부스 규모로 운영되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여행의 모든 것! 강원 TRAVEL MALL'이라는 콘셉트로 홍보관을 운영하여 강원도의 특별한 관광지와 방문 혜택 등을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타시도 부스와 차별화하기 위하여 18개 시군이 통합으로 홍보부스를 구성하여 호평을 받았으며 시군별로 2시간씩 참여형 이벤트(지역 음식 시식 등)를 진행하여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인기

를 얻었고, 또한 영월군과 연계하여 단종문화제를 홍보하여 왕사남의 인기를 관광객 유치로 이어가고자 노력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 이동희 관광국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대한민국 관광수도로서의 강원특별자치도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 도와 시군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대한민국 관광수도를 넘어 글로벌 관광수도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은 총 2,000ha 규모로, 2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으로, 경운·정지 등 농작업 대형 비용과 기타 농작업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10a(1,000㎡)당 10만 5천 원 이내이며, 농가당 최대 105만 원까지 지원해 고령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농지전용허가 건 대상 지목변경 일제조사

평창군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2024년 농지 전용 허가(협·신고) 건에 대한 지목변경 일제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월 2일 개정된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지 전용 목적 사업 완료 후 지목변경 신청이 의무화된 리 강화와 농지법 준수 유도, 법적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2024년에 농지 전용 허가·협·신고를 받은 부지 300건으로, 읍면별로는 ▲평창읍 42건 ▲미탄면 21건 ▲방림면 24건 ▲대화면 28건 ▲봉평면 54건 ▲용평면 40건 ▲진부면 47건 ▲대관령면 44건이다.

군은 목적 사업 완료 후 지목변경 이행 여부에 대한 서면조사(3~4월)와 함께 사업 미착공, 장기 방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조사(5월)를 병행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지도와 행정 처분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농지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행정 변경 등이 완료돼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김민석 기자

동해시, '달리는 국민신문고' 참여

동해시가 시민 고충 해소를 위한 현장 행정에 다시 한번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오는 4월 8일(수) 삼척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림에 따라, 동해시민을 대상으로 사전 고충민원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예약은 3월 24일(화)까지 시청 홍보감사담당관실 감사팀에서 받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기관 방문이 어렵거나 인터넷 이용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상담반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민원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찾아가는 국민권익의 서비스다.

동해시는 지난해에도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40여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그중 민원해결률 90% 이상의 성과를 거두는 등 시민 중심 현장소통 행정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정현영 홍보감사담당관은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적극행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춘천에서 자란 주한 가나 대사 고향 찾아

최고조 주한 가나대사 부임 후 첫 춘천 방문



최고조 주한 가나대사가 25일 고향 춘천을 방문한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최고조 가나대사, 김영채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임창선 나미비아 주한 가나 대사의 아프리카에서 직접 쌓아온 생생한 경험담이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

최고조 가나 대사의 이번 방문은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니라 개인적 인연이 깃든 도시를 가나대사 부임 이후 첫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담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최고조 대사는 춘천에서 초등학교까지 다닌 뒤 중학교 시기 선교사인 부친을 따라 가나로 이

주한 이력을 갖고 있다.

그는 가나에서 모바일 연계 핀테크 기업 운영과 아프리카 예술·문화 홍보 갤러리(Art Africa Gallery) 설립, 2018평창 동계올림픽 가나 선수단 부단장 등 한-아프리카 교류의 최전선에서 활동해 온 인물이다.

특히 이날 오후 3시에는 유봉영오대강의실에서 최고조 대사의 국제무대 경험과 진로 이야기를 공유하는 춘천시 공공외교 아카데미 특강이 진행된다.

특강에서는 아프리카의 잠재력과 한-아프리카 교류의 중요성을 비롯해 가나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최고조 주한 가나 대사의 아프리카에서 직접 쌓아온 생생한 경험담이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춘천에서 성장한 외교관이 다시 고향을 찾아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이번 방문과 특강을 계기로 지역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춘천과 아프리카 간 교류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속초시, 태권도팀 창단...체육도시 도약 본격화

창단식 연계, 제2회 시협회장배 태권도대회 개최...600여 명 참여



속초시는 3월 22일 청초생활체육관에서 속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팀 창단식을 열고, 지역 체육 발전과 전문선수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날 창단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이병선 속초시장을 비롯해 도·시의회, 도·시 체육회, 도·시 태권도협회 관계자 등 주요 내빈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상지대 태권도

시범단 공연을 시작으로 선수단 소개, 단기 전달, 창단 지원금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속초시청 태권도팀은 박형용 지도자와 4명의 선수(박수빈, 엄태은, 문영선, 구본이)로 구성됐다. 이 중 문영선 선수는 속초시청 소속으로 지난 3월 14일 열린 제25회 성평등가족부장관기 전국 태권도대회에 참가해 -62kg 겨루기 부문 3위에 입상한 바 있다.

시 태권도팀은 전국·국제대회 참가를 통해 속초시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또한, 지역 초·중·고 엘리트 태권도팀과 실업팀을 연계해 지역 우수선수의 타지역 실업팀 유출을 줄이고, 전국대회 입상을 통한 스포츠 진화 도시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내에는 현재 조양초등학교·속초중학교·설은중학교·설악고등학교 등 4개교에서 태권도팀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태권도팀에 등록된 선수는 60명 수준이다.

한편, 창단식과 연계해 제2회 속초시협회장배 태권도대회도 함께 개최됐다. 대회에는 관내 태권도 수련생과 학부모 등 600여 명이 참여해 대규모 축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태권도팀 창단은 속초시 체육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선수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전국 최고의 실업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과천시
과천시, 2025 민원서비스평가 최고 등급 '가등급'
행정안전부 · 국민권익위원회 공동 주관 평가

신뢰받는 행정
함께하는 과천

40th ANNIVERSARY
I Am 과천
We Are 과천